



### 자판기 덕에 한국은행 '총재' 살아났다

지폐에 인쇄돼 있어 재발행 비용 2000억 이명박 대통령이 '총재' 명칭이 구시대적이라며 변경을 지시하면서 촉발된 한국은행의 총재 명칭 수정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전망이다.

화폐 재발행 비용부터 현금자동입출금(ATM)기, 음료수 자동판매기 교체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들이 돌발변수로 떠오르면서 한은법 개정의 키를 쥐고 국회가 부정적 입장으로 선화했기 때문이다.

국회와 한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소위는 한은 총재 호칭을 대신할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안을 찾지 못해 차기 한은법 심의 과정 때 재차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은 총재 이름을 바꾸자고 희망해 옴에 따라 논의했지만 한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상 밖의 문제가 많아 당장 호칭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재' 호칭을 다른 것으로 바꿀 경우 우선 유통 중인 화폐를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주화에는 '한국은행만 인쇄돼 있으나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지폐의 앞면 초상 옆에는 '한국은행 총재' 글자와 직인(사진)이 있다. 총재 명칭을 쓰지 않을 경우 신권 발행뿐만 아니라, 한은으로 회수되는 지폐를 새 지폐로 바꿔 발행해야 한다.

총재 명칭을 빼고 새 화폐를 발행할 경우 은행 ATM

기의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폐가 투입되는 전국 음료수 자판기 프로그램 교체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고 소비자물가도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들여 전국의 수많은 자판기까지 고쳐야 한다면 국민 불편과 원성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게 소위의 견해였다"고 말했다. 과거 1만원권 교체 때도 자판기 생산업체들이 프로그램을 제때 바꾸지 않아 영세업자들이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를 새로 도안하면 기기를 통째로 바꾸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면서 "호칭 변경은 국회와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대전 대덕구 모범음식점에 잔반용기 자판기 무료보급

대전 대덕구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손님이 직접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잔반용기자판기를 보급키로 해 눈길을 끈다.

대덕구는 식품진흥기금 500여만원을 활용해 지역 내 모범음식점 67개소에 자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잔반용기디스펜서는 손님이 직접 남은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 밀폐용기를 300원을 넣고 뽑을 수 있는 자판기 형태다. 손님은 주인이 바쁠때나 미안해할 필요 없고 괜히 눈치 볼 필요없이 300원을 들여 잔반을 싸갈 수 있고 구입한 용기는 재활용도 가능하다.

반찬 재활용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잔반용기 자판기 도입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가게주인은 남은 음식을 손님이 직접 싸가니 번거롭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구는 주인입장에서 처음에만 무료로 디스펜서를 공급하고 이후에는 업주가 용기를 구입해야 하는데다 밀폐용기가 다떨어지면 수시로 채워줘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움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용인시 행정타운에 설치된 쌀 자동판매기

경기도 용인시가 1분 만에 소비자가 원하는 도정 정도의 쌀을 즉석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27일 시청이 있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소년수련관 앞에 쌀 자동판매기 1대를 설치했다. 이 자동판매기에서는 올해 생산된 용인지역 쌀 브랜드 백옥

쌀을 3kg(1만원) 단위로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현미 형태로 들어 있는 자동판매기의 쌀을 도정 정도(5분도, 7분도, 9분도, 11분도)를 선택한 뒤 1분 정도 기다리면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판기 쌀은 용인시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단이 현미 형태로 도정, 주기적으로 보충한다.

시는 이 자판기를 통해 설치 첫날 100만원에 상당하는 쌀 300kg을 판매했다. 시는 쌀 자판기가 지역 생산 백옥쌀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시민의 반응을 지켜본 뒤 관공서나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장애인 우선 배정 매점자판기...기상청·대법원 등 허가율 전무

장애인에게 배정해야 할 자판기 운영을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심지어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은(민주당)은 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매점 자

판기를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8.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기관 43곳의 매점, 자판기 7594개 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은 고작 641개에 불과했다.

특히 감사원, 통일부, 경찰청, 기상청, 대법원, 국회사 무처 등 9개 기관은 장애인 허가율이 0%였다. 심지어 경찰청은 매점 152개와 자판기 771개를 모두 기관이 자체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기상청은 매점 1개와 자판기 5개를 상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생업 지원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도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에게는 사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수익을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장관은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니 타 부처를 설득해서 개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거리의 여인들에 '섹스세' 부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본에 매춘부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 자동판매기가 등장했다. 독일 온라인 영자 신문 '저먼 헤럴드'는 본의 거리에서 티켓 없이 매춘할 경우 탈세 혐의로 수백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벌금은 수천 유로에 달한다. '거리의 여인들'이 자동판매기에서 뽑아야 할 티켓 값은 6유로(약 9000원). 이른바 '섹스세'인 셈이다. 당국에 따르면 본 거리에서 영업 중인 전업 매춘부는 하루 100명 정도다. 연간 30만 명이 거리로 나서는 셈이다.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장국으로서 는 적잖은 세월이다.

본 당국은 이렇게 거둬들인 섹스세 가운데 일부로 은밀한 성인 전용 주차장을 몇 군데 세울 계획이다. 성인 전용 주차장이란 성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공간이다. 시는 이런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연간 12만

유료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대변인은 “6유로 짜리 티켓을 하루 100장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며 투덜거리기도.

매매춘이 합법화한 독일에서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가 본만은 아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최대 도시 쾰른은 지난 2004년 전업 섹스노동자에게 달이 21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파트타임 섹스노동자는 하루 6유로를 내야 한다.

### 英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잉글랜드 지역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됐다.

영국 보건부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성인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선술집인 펍, 클럽, 레스토랑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잉글랜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건부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 가운데 11%가 자판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고 있으며 연간 3500만갑의 담배가 자판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담배 구입 최저 연령은 18세 이상이지만 청소년들은 지역 곳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담배를 구입해왔다.

보건부는 유흥업소 등에서 모든 담배 광고도 금지했으며 성인에 한해 카운터를 통해서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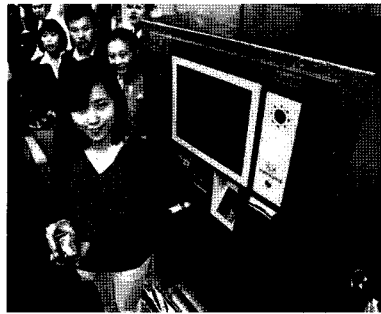
담배자판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2500파운드(한화 약 47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앤드루 랜슬리 보건부장관은 BBC에 출연해 “잉글랜드에서 매년 8만명 이상이 담배로 인해 숨지는 등 흡연은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베이징에 금 자판기 설치

중국 수도 베이징에 금을 파는 자판기가 설치됐다.

물가는 마구 오르고, 경기는 앞을 예측할 수 없으며



투자할 곳이 마땅치않자 금이 투자 대상으로 새로운 각광을 받는 가운데 금의 가격은 지난달 초 온스

당 미화 1,920달러로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물가는 무섭게 뛰는데 은행의 금리는 극히 낮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최고 변화가 왕푸징 지역에 독일의 금판매상인 TG Gold Super Mark가 금 판매 자판기를 설치했다.

이 자판기는 10가지 종류의 금 동전과 다양한 무게와 사이즈의 금괴를 판매한다.

2.5kg 금괴의 경우 현 시세로 1백만 위안(122만 홍콩달러)이며 10분 마다 국제 금 시장의 가격에 맞추어 판매가가 조정된다.

이 자판기에서 금을 사려는 사람은 50위안이나 100위안짜리 현금을 쓸 수

있고 또는 은행 현금 카드를 이용해 ATM을 사용하듯 이 금을 구매할 수 있다.

공급자 측은 보안 상의 이유로 사설 클럽이나 우수 고객 은행 등 안전하고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몇 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아부다비의 에미리트 펠러스 호텔에 세계 처음으로 금 판매 ATM을 설치했다. 현재는 스페인과 영국, 미국 등에 금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

